

‘미나리’, 골든글로브 최우수 외국어영화상... “진심의 언어”

정이사 감독, 딸 안고 수상소감 “영화 만든 큰 이유”

선댄스영화제 시작으로 75관왕 156개 노미네이트

아카데미 후보 발표 15일·시상식 내달 25일 예정

영화 ‘미나리’가 제78회 골든글로브 온라인 시상식에서 최우수 외국어영화상을 받았다.

시상식은 1일 오전 10시(한국시간 기준) 뉴욕 레인보우 돔과 미국 LA 비버리힐스 힐튼호텔에서 동시 개최됐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아래 시상자는 실제 참석하고 후보자와 수상자는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미나리는 ▲어니더 라운드(Another Round) ▲라 로로나(La Llorona) ▲더 라이프 어헤드(The Life Ahead) ▲투 오브 어스(Two of Us)

등의 작품과의 경쟁을 뚫고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정이사 감독은 감사인사로 운을 뚫 뒤 “‘미나리’는 가족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들만의 언어로 이야기하려고 노력하는 가족의 이야기다. 그리고 그 언어는 단지 미국의 언어나 그 어떠한 외국어보다 깊은 진심의 언어(Language of Heart)”라고 했다.

이어 “저 스스로도 그 언어를 배우려고 노력하고 몰려주려고 한다. 서로가 이 사랑의 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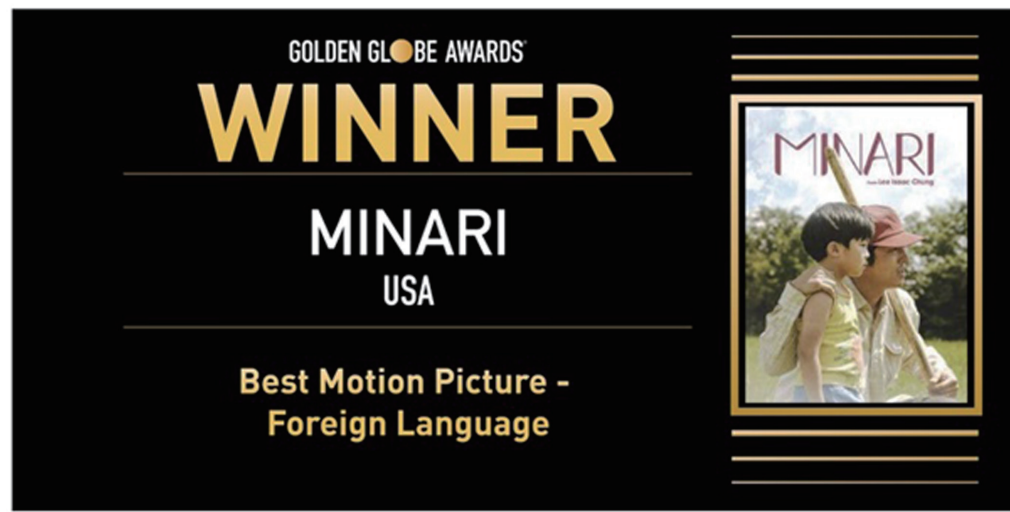
를 통해 말하는 법을 배우길 바란다. 특히 올해는”이라며 “여기 함께 한 저의 딸이 제가 이 영화를 만든 큰 이유”라고 소감을 밝혔다.

미나리는 희망을 찾아 낯선 미국으로 떠난 한 가족의 아주 특별한 여정을 담은 이야기다. 도시를 떠나 미국 아칸소의 외딴곳으로 이사 간 한국 가족이 희망을 품고 새롭게 농장을 가꾸며 벌어지는 일을 그렸다.

미나리는 정이사 감독이 연출하고 브래드 피트가 설립한 플래너B가 제작한 미국 영화지만, 대화의 50% 이상이 영어가 아닌 경우 외국어 영화로 분류한다는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 규정에 따라 최우수 외국어영화상 후보에 올랐다.

“미나리”는 지난해 미국의 대표적인 독립영화제인 선댄스영화제 심사위원 대상 및 관객상 수상을 시작으로 미국영화협회 및 시상식을 싸잡아 해왔다.

이번 골든글로브까지 전세계 75관왕, 156개



노미네이트를 기록해 아카데미상 유력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다.

특히 배우 율여정은 미국에서 연기상만 26개를 차지했다. 골든글로브에서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르진

못했으나 아카데미상에서는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다.

제93회 아카데미상 후보 발표는 이달 15일, 시상식은 다음달 25일에 열릴 예정이다. 뉴스

BTS 제이홉, 솔로곡 ‘블루 사이드’ 깜짝 공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제이홉이 2일 방탄소년단 블로그와 사운드 클라우드 등을 통해 솔로곡 ‘블루 사이드’(Blue Side)를 깜짝 공개했다.

앞서 제이홉이 2018년 발표한 첫 번째 믹스테이프 ‘호프 월드’(Hope World)의 아우트로 트랙을 발전시켰다.

1분30초가량의 원곡에 가사를 붙이고 멜로디를 더해 3분18초 길이의 노래로 재탄생시켰다. 제이홉이 작곡가 히스 노이즈, 아도라와 작업했다.

제이홉의 성장과 과거에 대한 그의 향수를 담아낸 곡이다. 예전을 그리워하는 노랫말과 아련한 분위기의 멜로디가 어우러졌다. 제이홉이 첫 믹스테이프 ‘호프 월드’를 세상에 내놓기 위한 분투한 시절을 떠올렸다.

제이홉은 블로그 글에서 “시간이 지나며 ‘왜 곡을 다 쓰지 못했을까?’라는 물음의

답도 점점 정리가 되더라. 음악적으로 내가 담아내기 과분한 주제였던 거 같고 그렇지만 ‘언젠가 스스로 느끼고 알겠지?’라는 운명적 의식을 가졌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직 한 곡에 불과하지만 음악적으로 조금은 성숙해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나아가 앞으로도 계속 도전하고 발전하며 성장한 모습으로 찾아뵙겠다는 당찬 마음도 담았다”고 덧붙였다.

제이홉은 그간 그룹 활동과 함께 솔로 작업을 꾸준히 병행해왔다. ‘호프 월드’는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38위에 오르기도 했다.

한편,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정식으로 솔로 앨범을 발매하지는 않았다. 대신 제이홉을 비롯 RM, 슈가 등은 비상업적 음반인 믹스테이프와 무료 음원 공개 등을 통해 그룹과는 다른 색깔의 음악을 꾸준히 선보여왔다.

병원 벗어나 본캐로 뭉쳐... ‘슬기로운 캠핑생활’

내일 오후 9시 유튜브 ‘채널 십오야’ 통해 첫 공개

‘슬기로운 의사생활’ 조정석, 유연석, 정경호, 김대명, 전미도가 본캐로 뭉친 ‘슬기로운 캠핑생활’이 온다.

tvN 측은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에 앞서 ‘슬기로운 캠핑생활’ 공식 포스터를 2일 공개했다.

‘슬기로운 캠핑생활’은 병원을 벗어나 본캐로 뭉친 조정석, 유연석, 정경호, 김대명, 전미도의 조금 시끄러운 1박 2일 캠핑기를 담아낼 예정이다.

공개된 포스터는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캠핑장에 웅기종기 모여 앉은 조

정석, 유연석, 정경호, 김대명, 전미도의 유쾌한 웃음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지난 25일 깜짝 공개된 티저 영상에는 신원호 감독의 메시지를 시작으로 캠핑을 즐기는 티저 영상에는 신원호 감독의 메시지를 시작으로 캠핑을 즐기는 모습이 담겼다.

신원호 감독은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를 기다려주시는 시청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부디 작은 즐거움과 위안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작했다”고 전했다.

한편 ‘슬기로운 캠핑생활’은 오는 4일 오후 9시 유튜브 ‘채널 십오야’를 통해 첫 공개된다.



tvN ‘슬기로운 캠핑생활’ 3월 4일 첫 공개

나영석PD의 출장 프로젝트 ‘출장 십오야’ 12일 첫 방송

5분 편성 솜뽕 콘텐츠



나영석PD의 출장 프로젝트 ‘출장 십오야’가 오는 12일 첫 방송된다.

tvN ‘출장 십오야’는 나영석PD가 ‘신서유기’ 혹은 ‘채널 십오야’에서 했던 다양한 게임을 필요로 하는 방송계 공식 행사, 예능 프로그램 등을 찾아가 게임을 진행해주는 나홀로 출장 프로젝트다.

지난 ‘뒤돌아보지 말아요’에 이은 tvN표 솜뽕 콘텐츠로, 예능과 드라마를 막론하고 다양한 게스트들이 출연해 ‘신서유기’ 게임에 도전할 예정이다.

연출을 맡은 신효정PD는 “어쩌면 최초의 예능 배달 서비스일 것이다. 예능이 필요한 연예인들을 직접 찾아가 모두 함께 재밌게 즐길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며 “‘출장 십오야’에서 다양한 연예인들의 면면은 물론 새로운 매력들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출장 십오야’는 5분 편성 솜뽕 콘텐츠로 오는 12일 오후 10시50분께 첫 방송된다. 방송 이후 유튜브 ‘채널 십오야’를 통해 풀 버전이 공개된다.

에이프릴 이나은 측 “고영욱 발언 합성·학폭 루머” 형사고소

그들 ‘에이프릴’ 멤버 이나은 측이 가수 고영욱 관련 댓글 합성·학폭 루머 등에 대해 고소했다.

DSP미디어는 2일 “법무법인 엘프스를 통해 당사 아티스트를 향한 악의적인 합성 게시물과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례를 형사 고소 진행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DSP는 “왜곡되고 악의적인 허위 게시물로 깊은 고통을 받고 있다. 현 시각부터 당사 아티스트를 상대로 한 악의성 짙은 비방과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 담긴 게시물 작성 및 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어떠한 선처나 합의 또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에이프릴은 전 멤버 이현주 왕따 의혹에 휩싸였다. 이후 핵심 멤버인 이나은에 대한 ‘학교폭력’ 의혹도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그녀가 과거 소셜미디어에 남겼다는 댓글 관련 논란도 나왔다.

이나은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지인의 소셜미디어에 ‘(미성년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가수인) 고영욱한테 성XX 당하고 싶냐’는 댓글을 남겼다는 주장이 불거진 것이다. 이에 대해 DSP미디어는 “예전에 나온 합성사진”이라며 역시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나은과 ‘에이핑크’ 운영의 열애설도 불거졌는데 DSP는 이에 대해서도 “사실 무관”이라고 밝혔다.

앞서 네티즌 A씨는 지난달 2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한 ‘전(前) 에이프릴 멤버 동생 일나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현주가 에이프릴에서 왕따를 당해 탈퇴했다고 주장했다.

에이프릴은 지난 2015년 미니 앨범 ‘드림(Dreaming)’을 데뷔했다. 이현주는 2016년 10월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던 연기자의 길에 집중해야겠다는 결정을 하게 됐다”며 팀을 탈퇴했다. 이나은은 최근 주가를 높이며 각종 예



능·광고 출연을 해왔다.



감우성x장동윤x박성훈 ‘조선구마사’

오는 22일 오후 10시 첫 방송

SBS 월화드라마 ‘조선구마사’는 2일 핏빛으로 물든 감우성, 장동윤, 박성훈의 3인 포스터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포스터 속 ‘대종’(감우성), ‘충녕대군’(장동윤), ‘양녕대군’(박성훈)의 비장하고 서늘한 눈빛은 시선을 끈다. 얼굴 반쪽에 드리워진 어둠은 이들의 숨겨진 두려움과 욕망을 암시하는 듯 긴장감을 높인다. 여기에 ‘악령이 깨어난 조선을 구마하라’는 심상치 않은 문구는 위기에 빠진 조선을 구하기 위한 이들의 처절한 사투를 예고한다.

‘조선구마사’는 인간의 욕망을 이용해 조선을 집어삼키려는 악령과 백성을 지키기 위해 이에 맞서는 인간들의 혈투를 그린다. 북방 순찰을 하던 이방원(대종)이 인간 위에 군림하려는 기이한 존재와 맞닥뜨린다는 상상력 위에 ‘엑소시즘’을 가미해 독창적인 세계관을 구축했다.

대종에 의해 철저히 봉인 당한 서역 악령이 욕망으로 꿈틀대는 조선 땅에서 부활해 벌이는 핏빛 전쟁이 숨 막히게 펼쳐질 예정이다.

‘녹두꽃’, ‘육룡이 나르샤’ 등 선 굵은 액션 사극에서 탁월한 연출력을 발휘한 신경수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한국형 엑소시즘 판타지 사극의 새 장을 연다.

여기에 감우성, 장동윤, 박성훈을 비롯해 김동준, 정혜성, 서영희, 금세록, 이유비 등 배우들의 조합이 기대를 높인다.

악령을 봉인하기 위해 다시 칼을 잡는 태종, 백성을 구하기 위해 핏빛 전쟁에 뛰어든 충녕대군,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갈등하는 양녕대군은 각자의 방식으로 재앙 같은 악령과 맞서 싸운다. 서로 다른 신념으로 뜨겁게 부딪힐 세 부자의 대립과 소중한 이들을 지키기 위한 이들의 선택에 이목이 쏠린다.

제작진은 “‘한국형 엑소시즘 사극’이라는 새로운 시도가 차별화된 재미를 선보인다. 인간의 탐욕에 스며든 악령과의 혈투는 화려한 액션과 더불어 공포심을 자극할 것”이라며 “이제껏 본적 없는 독창적 세계관을 완벽하게 구현한 감우성, 장동윤, 박성훈의 빈틈없는 시너지를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구마사’는 오는 22일 오후 10시에 첫 방송 된다.

이특 해킹피해 호소...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들 슈퍼주니어 이특이 지속되는 해킹 피해에 답답함을 표하며 자제해달라고 호소했다.

이특은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으로부터 해킹 시도 알림 메시지가 수차례 온 흔적을 공유하며 “#제발해킹하지마요”, “#부탁드려

요”, “#일마나말씀드려야하나요.” 등의 글을 올렸다.

해당 사진에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다시 액세스하려면 누르세요’라는 내용과 함께 인터넷 연결 주소가 있는 메시지가 지난달 12일부터 이날까지 이어졌다.

이날은 오전 1시부터 오전 4시, 오전 11시 30분까지 계속 전송됐다.

두 번째 사진을 살펴보면 이날 낮 12시께에는 불리비아 수크레 지역에서 이특 계정으로 로그인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특은 두 손 모아 부탁하는 이모티콘을 함께 ‘#제발’이란 문구를 적었다.

뉴스